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82호 현대불교  
2008년 6월 4일(음력 5월 1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 조금이라도 의심치 말고 진짜로 믿고 말져야 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 부처님 법이 따로 있어서 부처님 모셔 놓은 데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형상을 모셔 놓은 건 방편으로 모셔 놓은 것이니 그 형상도 여러분의 형상과 다를 바 없이 부처님의 마음도 다를 바 없이 부처님의 생명도 다를 바 없이 마세요. 법당에 와서 절을 할 때는 부처님과 같이 아닌 동근 한마음으로 예배를 올리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즉, 자기 조상이죠.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지니까 밝음이, 광력이 나와서 생명이 생기고, 그 생명이 수억겁 동안 쫓고 쫓기고 진화를 거듭하면서 사람으로써 등장하게 된 사실을 아신다면, 누가 형상시켜서 그렇게 끌고 다녔나를 아신다면 지금 자기 참주인공에게 믿고 말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인은 판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은 내 마음 가운데 만질 수도 없고 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자체, 바로 핵집입니다.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빛깔도 없기 때문에 광대무변한 겁니다. 이라고 그 한 점이 닿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블랙홀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불바퀴라고 합니다. 불바퀴의 그 중심, 소용돌이, 중심 한 점, 그 한 점은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고 불잡을 수도 없고 빛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간에게도 왼쪽 두뇌와 오른쪽 두뇌, 양면을 작용하는 핵집이 있습니다. 말하고 작용하고 행동하고, 크고 작은 걸 알고, 좋고 나쁜 걸 알게 하는 그 핵집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으면 그 핵집으로 통신이 돼서 각 부서로다가 하달이 되죠. 이걸 주진이라 합니다. 그 핵집을 주진이라고 한다면 바로 거기서 사대로 통신이 돼서 모든 공장에서 알게 되는 거죠. 어느 공장에서 파이가 일어났든가 고장이 났든가 그러면 모두 한마음으로 작용을 해줘서 그 공장의 직원들이 모두 일개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한 공장에서 일어난 파이를 판 공장에서 모두 협조를 해서 막아 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병고와 많은 원인이 바로 그런 파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파이는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영계성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유전성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세균성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업보성 인과성, 이러한 것에서 부질없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져서, 요게 떠나고 나면 저게 들어오고 이게 들어오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좀 흥락하고 삶이 좀 싱그럽고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자주 자주 들어오니까 상이 찌뿌러지고 그냥 신경질이나

나고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화가 나고 옆에서 말하는 소리도 듣기 싫고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장본인들이 바로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 진짜로 맡겨서 누진을 통해서 통신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 지구에도 레이더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오신통을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천안통을 천체망원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 천이통을 무전통신기라고 말할 수 있고, 신축통을 팩시밀리라고 해도 되는데, 가고 음이 없이 가고 오는 거죠. 또 속명통을 컴퓨터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남의 마음을 아주 들여다보는 것처럼 잘 알 수 있는 것이 타심통인데 그것을 탐지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 것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주진통, 즉 시체말로 말하면 레이더망입니다. 바깥에 있는 것을 안으로 연락하고 또 안에서 일어나서 바깥으로 가는 거 연락하고, 중심을 잡아서 결정을 내려서 통신을 하는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조금도 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생활, 우주의 섭류 이런 것이 전부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의심할 게 아니라 진짜로 믿고 말져야 합니다.

그래서 속명통이다 컴퓨터이다 이러한 것은, 컴퓨터에 그냥 과거에 살던 게 잔뜩 입력이 돼 가지고 그걸 현실에 자주 꾸역꾸역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컴퓨터로 비유합니다. 만약에 입력을 할 줄 안다면 그렇게 꾸역꾸역 나오는 것을 나오는 대로 그냥 입력을 다시 해 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놓으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입력이 돼서 자주 컴퓨터에서 나오니까 컴퓨터에다가 다시 입력을 해서 내려 이옵니다. 그러면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짐으로써 팔자 운명이 바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식들, 산 부처님들, 깨친 부처님들이 "고도 불을 자리가 없고 집착도 불을 자리가 없고, 멀다 하는 것도 불을 자리가 없고 도라는 언어도 불을 자리가 없다. 이 모두가 그대로 여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조 스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을 저가 제가 써 놓았습니다. 아래 위 다 떼어 버리고 그냥 요지만 썼습니다. 본래 자기중심은 청정한 것입니다. 본래 자기 자신은, 본래 자기 마음 중심으로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청정이라 그랬습니다. '한가운데 중' 자를 써서 중심이 청정하다는 거죠. '본래 자성이 청정함을 알라. 여여함을 알라.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알라. 자유자재함을 알라.' 본래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르칠 때 모두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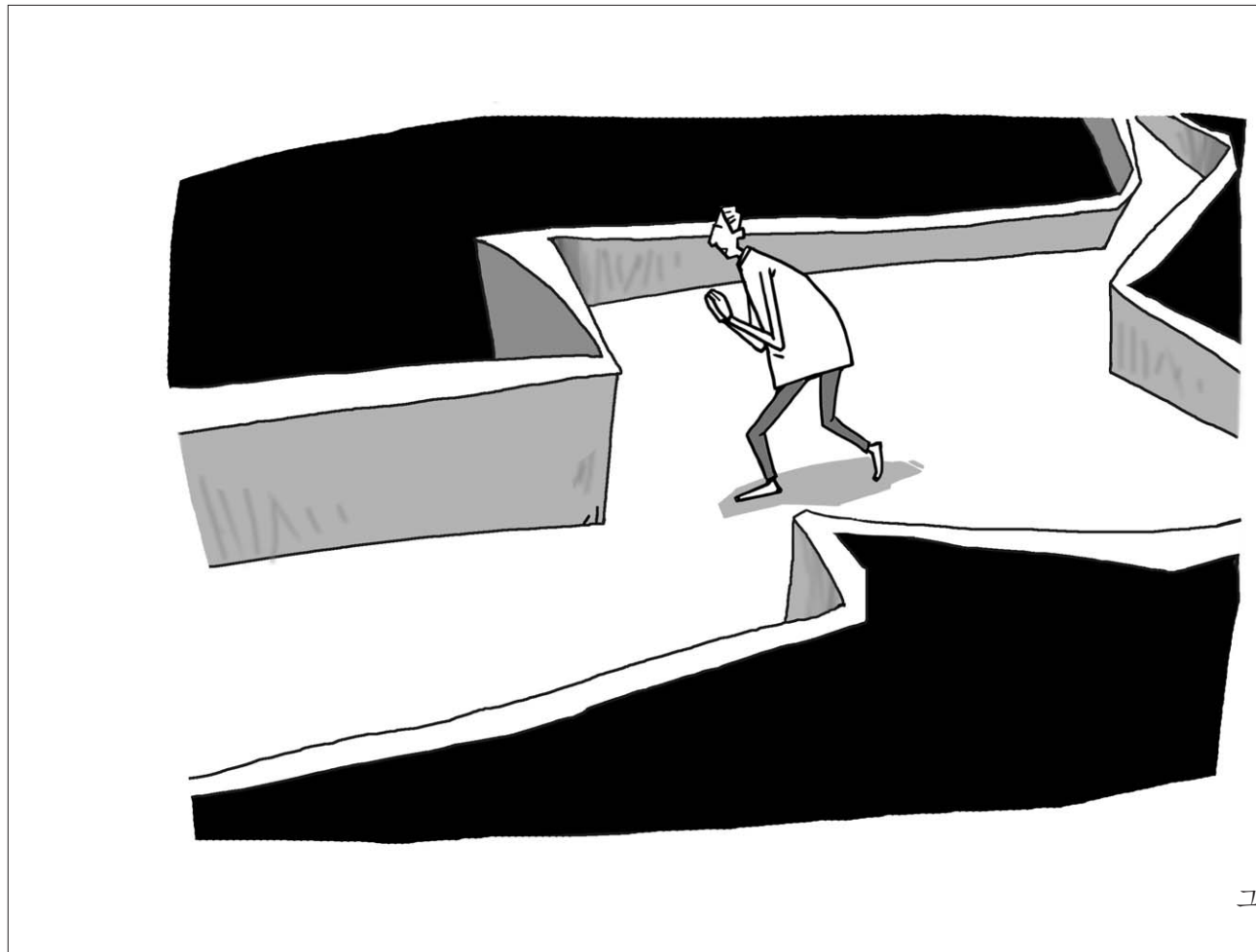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것이 정법이고 저것이 정법이다 이렇게 한다면 벌써 정법이면 사법이 들러붙고 사법에는 정법이 들러붙기 때문에 참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 마음은 틀이 아닙니다. 육조 스님도 "모습은 다름지언정 마음과 생명이 어떻게 들이겠느냐." 하셨습니다. 풀 한 포기도 생명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마음이야 어찌 들이겠습니까?" 이었습니다. 비구 비구니,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들이 아니라 이 소립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옛 조사들의 뒷발자취만 쫓아가면서 미거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세상인데도 미거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자는 성불 못한다는 등, 비구니는 뭐 천도도 못한다는 등, 비구니는 비구 앞에 삼 배를 올려야 한다는 등, 상황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모두 주어진 것이고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비구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비구니 속에서 나왔죠? (대중 웃음) 안

그렇습니까? (대중 박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양계의 모두를 아버지라고 비유한다면 산하대지의 일체 만물을 길러 주는 것은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산하대지의 일체 만물이 나오 자라는 도리를 모르니, 그렇게 말하는 분은 한 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복하면 '자궁'이라고 합니까? 자식의 집이라 이 소립입니다. 집의 도리를 모르니까 한 번 더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하하하...

어쨌든 간에 거짓말을 해서 남이 이익이라면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또 진실을 말해서 언짢을 일이라면 거짓말을 속 해서 양면이 다 좋게끔 하는 것이 참 좋은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두 마음으로써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지켜 보고 누가 될 일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소가

남의 파발로 들어가든 말든 그저 내버려 두지 말고 고삐를 쥐고 다스려야 이겁니다. 남의 파발로 들어가면 '아이, 똑바로 가야지!' 하고선 고삐를 잡아채는 것이 바로 마음의 다스림입니다. 마음으로써 자기를 다스리는 과정입니다. 그 모두를 그렇게 잘 다스리면서 그저 정에다 놓으셔야 잘 들어가죠. 모든 것을 한마음 가운데다가 탁탁 놓되, 안되는 거는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놓고, 잘되는 건 감사하게 놓고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면서 굴러면서 찰흙 내야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틈에서 그냥 잘 돌아가게끔 되지 않겠습니까?

따로따로 생각해서 '병고가 있으니까 스님한테 꼭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러는 건 너무 무모한 생각입니다. 얘기를 들어 드리긴 합니다. 심부름꾼

26면으로 계속

##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한 불 전 함



움직이거나  
터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대

-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 100%
- ◆ 발달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특 043-647-2378, 011-467-1472

##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 시술 대상**
- 두통, 경향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클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한,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클리닉.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 불교 전통의식 수강생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북 동부교구 중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교육 과정 1년 (서울, 경기 의식기준)

1. 사물다루는법 : 도량식, 조석예불, 각단에불, 각형(불공), 시식
2. 천 도 의 식 : 49재, 시련, 대령, 관육, 신중작법, 상단관공, 시식
3. 각종바라작법 (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합니다.)
4. 개 강 일 : 2008년 5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경우에 따라 요일변경)
5. 장 소 : 경북 동부교구 중무원 설법전
6. 수 업 료 : 매월 10만원
7. 접수연락처 : (054)762-5888, 011-819-7464 팩스 (054)762-5889
8. 주 소 :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278-9번지 2층

한국불교태고종 경북 동부교구 중무원

## 모시는 글 원효성사 1391주년 송모제

귀의 삼보하옵고 무자(戊子)년 오월, 원효성사 송모제 1391주년을 맞이하여, 한국불교 총 원효종 분찰 호암사에서 대덕스님을 모시고, 원효성사 송모제를 장엄히 봉행하고자 하오니 여러 사대부중께서는 무무 동참하시어 원효성사의 깊은 사상을 더욱 빛내 주시길 발원합니다.

때 : 2008년 6월 7일(불기 2552년 음력 5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곳 : 대한불교 총 원효종 총무원 호암사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051-1번지] 호암사 원효단  
전화 053)983-2157 팩스 053)986-0500

## 대한불교총원효종

총 정 승 호암  
사무총장 허 선관  
정 세명 윤 선업